

“정치 브로커로부터 시청 인사권 요구받았다”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브로커 개입 폭로·사퇴… “선거자금 명목으로 시청 국과장 자리 요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7일 “정치 브로커로부터 (당선 시) 시청 인사권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브로커가)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브로커는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 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면서 “요구한 인사권은 주로 이권과 연계된 건설, 산업 쪽이었다”고 털어놨다.

이 예비후보는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해서 인사권은 매우 중요하다”며 “인사권을 공유하자고 제안하길래 ‘그럴 거면 직접 출마하라’고 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브로커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다”며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으나,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7일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로서 지역활동을 시작한 작년 5월부터 브로커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다”면서 전주시장 선거의 정치 브로커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나를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러한 대화를 녹취

록 형태로 보관 중이며 정치 브로커들의 활동이 담긴 다른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했다.

그는 기형적인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예비후보는 “(브로커는)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편도 일러줬다”며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주소지를 특정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업체가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대거 후보자의 지역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바꾸면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정한 현재의 경선 방식은 조직을 만들라는 말이고 조직을 만들려면 돈을 쓰라는 이야기”라면서 경선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 활성화 근로자 고용안정 돕는다

전주시, 전국 지자체 최초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 시행

전주시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통해 코로나19로 힘겨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로 했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되는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이하 전주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주형 퇴직연금 지원사업은 30인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매달 5만 원씩을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 외에 추가 적립하면 전주시가 매달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는 오는 15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 예정인 30인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의 2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3차년에 걸쳐 200명씩 총 6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이차 차

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도 전개한다.

이외에도 시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지원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해외마케팅 아카데미 운영 △수출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전주형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숙련공의 장기재직 유도를 기대하며, 전주시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들을 통해 중소기업 활성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359)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상생일자리’ 추진 로드맵 마련

시, 거버넌스 구성·운영·하반기 지정신청 등 추진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탄소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주형 상생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형 상생일자리 추진을 위해 올해 △전주형일자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협약사항 이행 △국비사업 발굴 및 기업 지원사업 확정 △하반기 산업부 지역 상생일자리 지정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전주형 일자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탄소산업 상생협의의 산하 분과위원회인 △탄소산업협동조합분과위원회 △일자리개선포럼 △공공근로복지기금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키

로 했다.

탄소산업협동조합분과위원회는 탄소공공구매와 협동화 공장, 공동교육 등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일자리개선포럼위원회는 노동시간과 복지, 환경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상생 의제에 대해 논의 후 실행하게 된다.

공공근로복지기금분과위원회는 참여기업·전북도·전주시 출연 복지기금 및 정부 지원금을 합한 총 60억 원의 복지기금 조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며, 참여기업 근로자 대상 복지기금 운영 및 지원을 주관한다.

또한 시는 효성첨단소재와 테크카본, KGF 등 전주형 상생일자리 3개 협약기업과 비나텍, 피치케이비, 라지, 테라엔지니어링, 란스A&C, 에니에스, 씨디엘 등 7개 협력기업이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투자 1375억 원, 고용 227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등의 협약사항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체 지원사업을 확정된 후 올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 상생일자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을 위한 기본 신청기준은 △상생협약(상생협약내 도출) △투자 부문(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내 300억 이상 투자) △고용 부문(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내 100명 이상 고용) 등 3개 항목으로 전주형일자리 지정의 경우 현재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지정 평가는 산업·기술·노동 전문

가와 산업부 담당과장 등으로 구성된 민간합동지원단에서 제출서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를 하고, 60점 이상이 되면 산업부 장관과 중앙부처 차관 등 1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참석 위원외의 과반 이상 찬성시 최종 선정된다.

상생형일자리에 지정되면 참여기업과 근로자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를 가산 및 한도 상향 △법인세 감면 △세액공제 우대 △직장 어린이집 △통근버스 △복합문화센터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전주형 일자리는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지역산업 구조를 첨단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산업 관련 노·사·민·정, 노사발전재단, 전북도, 전북대학교 등과 꾸준히 협력해 정부의 지역 상생형일자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 발령

전주시는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배와 사과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꽃·줄기·과실 등이 검게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국가적역병해충이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 예방 및 사전신고 △농가 자가예방 및 사전신고 의무 △영농일지 기록 △겨울철 사전예방 껌양 제거 등 농가 예방수칙 10개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배·사과 과원 소유자, 경작자 및 농작업자 등 과원출입자와 관련 종사자들로, 별도 해제 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과수농가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윤상 기자

“예산 대폭 늘리고 끌어와 전주대변혁 이룰 것”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예산 8조원 시대를 열어 본 경험으로 전주 경제를 살리겠다”며 “전주시민이면 접점이 되어, 누가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적임자인지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7일 “차기 윤석열 정부의 예산장벽을 극복하고 전주 몫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 나서야 한다”면서 “30년 기재부 실무경력과 다양한 인맥을 활용해 예산해결사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예산확보와



전주의 발전을 말할 수 있으나 예산확보와 전주발전을 누구나 이룰 수는 없다”며 “전주의 예산해결사는 저 우범기가 적격이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기재부 시절 전주를 돕고 싶어도 사업규모 자체가 작았다. 그림을 키우면 예산을 받던 확보해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지역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끌어와 획기적인 전주대변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全州 完州 통합, 完州한 으뜸도시 건설 ▲후백제 왕도 복원 전통문화관광자원 개발 전주역 명품환승센터 조성 ▲첫마중길 지하도로 건설 ▲대기업 유치에 포함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푸드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전주지역 청년들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주푸드 홍보대사가 된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유정희)는 7일 센터 3층 교육강의실에서 신규 단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전주푸드 청년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청년서포터즈 단원들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전주푸드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해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전주푸드 2025 교육’이 이뤄졌다. 청년서포터즈 단원들은 이날 임명장

을 받고 전주푸드 경기장직매장을 견학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주푸드 관련 콘텐츠(글, 사진, 영상)를 제작하고 전주푸드 누리집이나 SNS 등을 통해 전주푸드를 알리는 홍보 임무를 맡게 된다. 전주푸드 직거래장터와 감성문화축제 등 전주푸드 관련 행사에도 월 1회 이상 참여한다.

청년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오는 9월까지 6개월기량으로, 매월 1회 이상

장기모임에 참석해 조별로 기획회의 및 콘텐츠 제작 활동도 하게 된다.

청년서포터즈에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서포터즈 단원증이 지급되며, 오는 10월로 예정된 해단식에서는 우수활동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정희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지역푸드플랜을 선도하고 있는 전주푸드를 위해 청년서포터즈들이 짧은 감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교육과 활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 월드컵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종일 개방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시민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월드컵보조경기장 육상트랙을 종일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11일부터 월드컵보조경기장 육상트랙 개방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한다.

공단은 그동안 월드컵보조경기장 육상트랙을 아침과 저녁에 2시간씩 2차례 개방해 왔다.

월드컵보조경기장 육상트랙은 국제 표준규격인 타원형 400m 트랙으로 우레탄 재질에 8레인으로 이뤄져 있다.

월드컵보조경기장은 유료 이용시설로 잔디 보호를 위해 일반 시민의 이용은 제한된다. 또 각종 경기 또는 선수 훈련이 진행될 경우 트랙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제1회 전주 옛이야기 대회’ 참여자 모집

5월 13일까지 만 60세 이상 전 국민 선착순 100명

책이 시민들의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시가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옛이야기와 어른스 이야기꾼을 발굴해 미래자산으로 활용키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시민과 미래세대에게 정채성 함양과 전통문화 전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 13일까지 만 60세 이상 전 국민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제1회 전주 옛이야기 대회’ 참여자를 모집한다.

제1회 전주 옛이야기 대회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주지역 동네 이야기 △전주 지역 설화(전설·신화·민담) △최근 100년 이내 전주의 산업, 경제, 문화 등 생활 이야기로 전주를 소재로 한 이야기로 제한되며 5분 이내로 발표해야 한

다.

대회는 오는 5월 20일과 23일, 24일 3일간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진행되는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30명을 가려낸다.

본선 진출자수는 6월 9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를 거쳐 수상자가 가려지게 된다. 단, 대회의 참여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예선 대회 없이 곧바로 본선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의 경우 전주독서대전 누리집(jbook.kr)에 인적사항과 이야기 제목, 줄거리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책의도시여행과

/김윤상 기자

책읽는도시팀(완산구 백제대로 306, 3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본선대회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50만 원) △최우수상 1명(30만 원) △우수상 3명(20만 원) △장려상 15명(10만 원)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든 수상자들에게는 전주시장상과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이야기 기문 교육 및 활동의 장 마련, 이야기 문집 제작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대회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jbook.kr)을 참고하거나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책의도시여행과 책읽는도시팀(063-230-18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삶의 정서와 지혜가 담긴 다양한 전주의 옛이야기가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제1회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백석저수지 명품 호수공원으로 만들 것”

임정엽 전주시장 예비후보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7일 정책발표를 통해 “공원 조성이 예정된 백석저수지에 놀이·체육·체험·편의시설 등을 대폭 확충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호수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전주 예곡시타의 백석저수지(5만8,680㎡)는 현재 전주에서 총 사면비 90억 원을 들여 테라스, 수변데크, 산책로 등을 갖춘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임 출마예정자는 “애초 계획했던 호수공원화 사업 목적이 변질되고 규모도 축소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



온다”며 “수변데크, 산책로 같은 시설 몇 개 설치했다고 공원이 되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찾아 편안하고 즐겁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임 출마예정자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라도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갖출 계획이다. 명품 호수공원에 걸맞게 바닥분수, 벽천(壁泉), 물놀이장 등 다양한 수경시설을 조성하고, 상설 음악회·전시회를 열 수 있는 야외무대, 생태체험·자연관찰 등이 가능한 생태학습관도 설치한다

는 것.

그는 또, 생활체육시설과 놀이터,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하고, 백석호수공원과 세병공원을 잇는 보도교를 설치해 예곡시타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